

연극과 오락의 경계를 택한 런던 소호극장

클 김준영 (런던통신원, 런던ILOVESTAGE Ltd. 프로듀서, k.ilovestage@gmail.com)

©david tett



이번 '세계연극의 창'에는 런던의 세계적 극장가인 웨스트엔드 [애칭 시어터랜드(Theatreland)]에 위치한 코미디 연극 그리고 카바레 공연을 제작해 연간 18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신작 파워 하우스 소호극장을 조명한다. 비교적 작은 극장이지만 1,000여 석 이상의 대형 극장들의 집합 속에서 매일 경쟁하고 독특하게 자리매김하는 이들의 노하우를 극장의 특성을 살린 세 장르의 각기 다른 공연 프로그램과 특히 작가 개발 부분이라는 성공 요인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보고, 최근 해외예술가들과의 콘텐츠 공유 및 공동 제작 노력에서 향후 우리 공연들과의 제휴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소호시어터컴퍼니[The Soho Theatre]

소호극장(이하 소호)은 1969년에 지금의 위치(런던 소호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 설립되었는데 1990년 들어 돌파구를 찾지 못해 '로얄코트(Royal Court)', '리버사이드스튜디오(Riverside Studios)', 'ICA' 등 런던의 여러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가 1995년 이후 신규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다. 2000년 들어 소호극장, 소호 '업', 소호 '다운' 인 지금의 형태를 갖추고 다소 우리의 공연 관객층과 유사한 소호의 젊은 런던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작 개발과 동시대 작품을 소개하며 독특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2014년 대학로소극장축제를 통해 이곳에서 제작해 '올리비에상(Olivier Award)', '주목할 만한 작품' 후보에 오른 1인극 <플리백(Fleabag)> 이 소개되어 인연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매출 100억(550만 파운드)를 이루며 승승장구하던 소호에 어려움도 있었다. 2012년 안타깝게도 극장에서 작업 중이던 무대감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배우조합이 무대감독을 지원하는 소송에서 패소해 약 62억을 변상해야 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는 영국 공연 산업에서 배우조합이 극장과의 소송에서 이룬 가장 큰 보상액으로 영국 '공연장안전관리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강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아픔을 뒤로 하고도 소호는 끊임없이 런던 관객들의 주목을 모으는데, 특히 소호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그 중심에 있다 하겠다.

극장 운영 프로그램

소호시어터는 모두 세 개의 공연장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공간의 특성을 살려 형식을 파괴한 '카바레' 쇼, 코미디 그리고 연극의 혼합이다. 카바레는 음악과 춤 그리고 드라마가 뒤섞인 오락으로 영국에선 흔히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별짓기도 하는데, 레스토랑, 선술집 그리고 클럽에서 무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장 지하에 마련된 이 공간은 작은 클럽을 연상시키는 무대로 알코올 판매를 위해 바를 별도 운영하는 독립 공간이다. 물론 각 층마다 미니 바와 레스토랑을 겸비해 일반 극장과 똑같이 주류 반입을 허락하고 있어 공연 관객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극장 운영에도 막대한 재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코미디 부분은 영미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탠드업(Stand-up)'이 주류를 이루고 방송을 준비하는 코미디언들이 촬영 전 라이브 공연을 소호에서 선보이며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한다. 작은 무대이지만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코미디언들의 공연이 이어질 때면 소호는 예외없이 매진 사례가 되는 코미디언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연극 부문은 신규 작가 양성 프로그램(Writer's Lab)을 통해 영국 최고의 작가 등용문을 제공하고 매년 6명의 작가를 선정해 1년 내내 소호극장에 상주를 허락하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공연 스태프, 예술가 그리고 관객들을 만나게 한다. 이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소호 공연장의 구조, 공연 및 관객의 특성을 이해하며 작품을 완성해나가고 각기 다른 개성의 6명이 서로에

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품을 써나가는 작가 연구실 개념으로 1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소호6(The Soho Six)'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대에 소개된다.

이와는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신규 작가 응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제출된 약 1000여 편의 작품을 전달받아 최고 작품에 상금(6천 파운드)을 수여하고 소호예술감독(Steve Marmion) 지휘 하에 독점 제작의 기회를 갖는 'VBA(Verity Bargate Award)' 시상식이 있다. 소호극장의 창립자 '바게이트(Bargate)' 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상으로 데뷔한 많은 작가 가운데 놀랍게도 한국인 작가로 '인숙 채플(In-Sook Chappell)' 이 있었다. 25년 전 헤어진 남동생을 찾아 한국으로 온 그녀와 영국계 한국인 누나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남동생과의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다루었던 <This isn't romance>는 2007년 이 부분에 당선되어 2009년 공연되었고 이어 BBC 제4 라디오를 통해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다.

각기 다른 세 개의 공연장은 약 90~150석 규모이나 많은 경우 하루 1,000여 명의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어 놀랍게도 29년 동안 한자리에서 공연 중인 세계적인 상업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일일 관객수와 견줄 만하다. 무엇이 소호를 이렇게 바쁜 공연장으로 만들었을까?

다양한 예술적 표현 양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연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라는 물음은 의미없는 킬러들의 픽셀이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영상 문화로 집중되는 디지털 시대에 영미권학회에서 반복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을 모아 보면 대부분 '인간 문화 현상', '자기 표현의 욕구', 또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몸에 대한 탐구' 는 어쩔 수 없는 '자기 발견의 과정' 이라는 등 연극은 '예술의 기초' 이면서 '창의력' 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가치' 가 높다는 답변으로 돌아온다. 만약 내 인생에 딱 한 시간 마지막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식의 논쟁이 오고 가는 학회에 앉아있고 싶다. 너무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앉아 있는 한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가끔은 우리가 논의하는 답변들을 다 접어두고 여름철 공연 축제의 장 에든버러나 아비뇽 그리고 매주 확인이 가능한 그곳들의 축소판인 소호극장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시각 문화를 주도하는 매체가 영상 미디어인 이 시대에 그래도 아직은 공연이 필요한 장르라는 진지한 논의보다는 때때로 라이브 공연을 마치 축제처럼 가볍게 접근해도 무한한 가능성이 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에 틀림없는 방문이었다. 최근 소호는 런던이라는 다민족 사회의 이야기를 반영하고자 해외 교류를 모색하고 나섰다. 이참에 우리의 창작자들과 공연제작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기대해본다. **■**



인터뷰

작가 인숙 채플(In-Sook Chappell)

1. 공연계에 입문한 계기는?

런던과 뉴욕에서 무용을 전공했다가 부상을 입고난 후 영국극립극단에서 배우 경험을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다 2004년경 처음으로 대본을 쓰기 시작했고 지인의 도움으로 훌륭한 연출가를 알게 되어 어드바이스를 받기도 했다.

2. VBA 당선작인 <This isn't romance>는 어떤 동기로 쓰게 되었는가?

한국에서 생후 18개월 만에 영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해외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10대 후반에야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2주 정도 다니면서 주입식 한국 문화 수업을 받았는데 충격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낯선 한국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찾아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난 그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지금 느끼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후 고아원을 방문해 거기서 세 살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를 목격하면서 극에 등장하는 남동생의 캐릭터를 그리게 되었다. 만약 내가 영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했을까를 상상하며 당시의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러브스토리를 쓰고 싶었지만 일반적 사랑은 재미없어 금지된 사랑으로 전환했다.

3. 완성한 대본을 어떻게 VBA에 응모하게 되었는가?

VBA는 국적의 제한이 없다. 다만 대본을 영어로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인숙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완성 후 소호극장에 제출하고 잊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서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수백 여 편의 대본 가운데 최종후보에 들었다는 연락을 극장으로부터 받았다. 그 후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장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당선이 되고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여러 편의 대본을 썼지만 공연이 되지 못했으니 이 작품이 나에게는 웨스트엔드 데뷔작이 된 셈이다.

4. 수상 후 공연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먼저 상을 받고 난 다음엔 공연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차를 마시고 싶어해서 놀랐다.(웃음) 상금을 받고 극장의 예술감독과 함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오디션 및 실제 공연을 제작하는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국계 영국인 배우가 없어 당시 소호 예술감독은 뉴욕에서 한국계 배우의 오디션을 보았고 이로 인해 비교적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영국배우협회에서 다소 반발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5. 현재 활동 및 하고 싶은 말은?

주부이면서 글을 쓰는 게 직업이다. 계속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신작 연극 <평양(P'yongyang)> 을 쓰고 제작해 평단 및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또 지금은 동 공연의 영화화 제안을 받고 있어 한국 측 프로듀서와 공동 작업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런던엔 이렇게 작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많다. 대본이 영어로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작가들도 얼마든지 데뷔할 수 있다. VBA가 한국의 작품들이 소개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끝으로 극장 측과 예술감독이 애착을 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해 데뷔하게 한 소호극장에 감사한다. 창작자로서 주목 받고 계속 활동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

【희곡당선작 <This isn't romance>는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된 누나가 성인이 되어 남동생을 찾아가지만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남동생은 누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에게 돈을 부탁하게 된다. 여유롭지 못했던 누나는 술집 성노동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이 모습은 곧 동생에게도 보여지고 오랜 헤어짐으로 인해 첫 만남부터 낯설었던 누나에게서 동생은 술집에서 목격한 장면이 떠올라 쉽게 겁탈하려 한다. 상황이 설득할 수 없는 수위로 치닫자 이성으로 욕망을 조절하려 했던 누나는, 부둥켜안은 남동생을 두고 자신의 얼굴에 위스키를 부어 불로 자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충격적인 공연이다. 작가는 인터뷰 도중 자신의 실제 상황과 픽션을 섞어 쓴 작품이라고 표현했다.】